

문 대통령, 정부 4개 부처 장관 교체

국토부 - 변창흠 LH사장
행안부 - 민주 전해철 의원
복지부 - 권덕철 원장
여가부 - 정영애 이사

〈정부 4개 부처 개각〉



〈그래픽=뉴스시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연말 소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5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58)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에 권덕철(5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정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 정영애(65)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장관 교체는 지난 7월 3일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교체하는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단행한 지

5개월 만이다. 4명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지난해 8·9 개각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통과된다면 정부 출범 원년 멤버인 김현미 장관과 박능후 장관은 지명일로부터 3년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변창흠 후보자는 대구 능인고를 나와 서울대에서 경제학과를 수료한 뒤 동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일한 학자 출신으로, 도시 계획 및 주택 분야의 전문가로 불

린다.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1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최근까지는 LH 사장을 역임했다. 정 수석은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 주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이라며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더욱 가속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 서민 주거 안정,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권덕철 후보자는 전북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독일 슈파이어행정대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으로 일하며 요직을 두루 거쳤고,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일했다. 정 수석은 "정부 보건 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라며 "오랜 정책 경영과 외유내강 리더십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확충 등 다양한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후보자는 경남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제19·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제21대 총선에서 당선했다. 현재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수석은 "통과력과 리더십, 당정청 국정 운영 바탕으로 재난 관리 체계 강화, 실질적 저지 분권 실현, 정부 역

신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해 중앙 지방 간 균형발전을 잘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영애 후보자는 서울 진명여고를 나와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사회학 석사, 동 대학원에서 여성학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를 기록한 여성학 전문가로도 불린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과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으로 일했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역임했다. 정 수석은 "여성학 전문성,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강하고,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확충 등 다양한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12·4 개각은 정책 수요 변화에 맞춰져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이날 내정된 후보자들은 "모두 다 1주먹자"라고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으로 소폭 규모의 개각을 한 차례 더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위 관계자는 "보궐선거 관련 인사 수요도 있다"며 "총리도 두 번에 나눠 한다고 말했다. 다음번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시

성경찬 도의원,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성경찬 의원(고창1)은 지난 4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창군 '한옥 전문인 양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인구유입' 사업 현장 방문했다. 성경찬 의원은 전북도 및 고창군 인구정책 담당공무원과 함께 지난 5일에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고창군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전북대학교 최천호 한옥건축기술인력양성사업 부단장의 사업추진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창군 '한옥전문인 양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인구유입' 사업은 지역의 빈집, 노후 건축물 등 건축자원을 활용해 청년이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이 직접 주거시설을 개선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근로자에게 수선한 빈집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교 캠퍼스를 주민들에게 개방해 목조건축 단기교육, 노후 건축물 집수선 목공기술 중기교육, 한옥건축 전문기술 장기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성경찬 의원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구감소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기 조성된 공간을 활용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예산 심사

“지속적 국제교류 관계 유지 비대면 교류방안 검토 필요”

최훈열 도의원, 무주태권도 결선 관계자 초청 관련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지난 4일 2021년 전북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일차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심사는 혁신성장산업국, 대외협력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이뤄졌다. 김만기 위원장(고창2)은 "이번 예산심사는 전북도의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산업 육성사업과 신숙한 새만금 개발 추진사업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펼쳐나갔"으며 "전북도 각 실국원장에게 제안 설명과 같이 실국원장에게 제안 설명에 맞게 예산을 잘 편성하고, 미진한 것은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군산광역시 발전소 10년정도 운영해 85% 수익을 기록했다는 전북도의 자료에 매년 3억원에 가까운 운영비가 누락되어 있다"며 "총수입 및 비용 자료를 검토해 수익률을 재산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사에 무주태권도 결선

대회 관계자 초청사업은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 및 외국 선수단에게 전북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코로나19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국제 교류 관계 유지를 위해 비대면 교류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과학기술 분야에 전북도의 장기적 비전에 대한 예산투자가 빈약한 점"을 지적하며 "중장기 전북도 과학기술 발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타 지역과 유사한 규모의 예산지원과 관련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R&D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과 관련해 동반가족 이주 및 지역의 우수인력확보 등 소기의 효과가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또한 '전북도내 소재부품정비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골절 수술 미루고 예산안 심사 참여

김이재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이 골절 수술을 미루고 2021년도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등에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도소방본부와 대외협력국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귀가하려다 발가락뼈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며 바로 입원할 것을 권했지만, 김 의원은 수술을 미룬채 김스를 하고 의회에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 도청과 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

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김스를 한 지 지난달 30일 완주교육지원청과 완주군도서관, 전북대표도서관 부지방문까지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뤄지는 예산안 및 추경안 심사는 올 한해 결산과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단계여서 빠질 수가 없었다"며 "치료도 급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에게 부여받은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수술을 미뤘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정읍 가축방역 현장을 방문한 행정부지사

“국립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반영 환영”

도의회 환복위 성명 발표... 의료인력 양성 시급성 고려 '설립·운영 법안' 통과 촉구

지난 4일 전북도의회 환복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운영' 예산 11억 8,500만원의 예산반영을 환영한다"면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발의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환복위에 따르면, 지난 2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포함해 총 104건의 안건

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삭감의견이 제시됐던 '국립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운영' (국립공공의대 설립·운영) 예산 2억3,000만원에 9억 5,500만원이 증액된 11억8,500만원을 여·야 합의로 반영됐다. 이날 도의회 환복위는 "비록 법안 통과 후 집행이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으나,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필수 전문과목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내과,

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소중한 첫걸음'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할 의료인력 충원과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 기피진료과목 의료인력 부족문제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여·야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면서 "국가적 과제 해결에 핵심적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도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 '효행대상' 수상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이 지난 4일 제16회 효 문화 실천을 위한 부모님 김 한마음대회에서 (사)전북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총재 소순갑)으로부터 '효행대상'을 수상했다. 전북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은 강 의장이 올바른 의정사정립과 시민들의 효행실천을 위한 남다른 열정을 보였으며, 그동안 효(孝)실천 함양사업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해 효행대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2012년 6월 전주시의원으로

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평소 부모님 봉양과 이웃 어른 공경으로 경묘효친사상을 몸소 실천해 시민들의 효행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에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근 효문화 확산과 노인복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시의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갖는 등 사회 전반에 전통정신문화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강 의장은 "과분하게도 효행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효문화 확산과 노인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100세시대 실버 노인층 제도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박용근 도의원 "드론 조종 자격 학과시험장 전북 확대 환영"



2021년부터 교통신용공단 전북 지사에서 드론 조종 자격 학과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과시험을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4곳의 지사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그간 도민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시험에 응시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 편의 증대와 전북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월 제369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통해 드론 조종 자격 학과시험을 전북에서도 치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촉구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유호상 기자

민주 이원택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원 추가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원(김제 7억·부안 7억)을 추가로 확보, 올해 총 3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김제시, 부안군과 협의해 김제 가족센터 건립 4억, 요촌동 장전3 공공주차장 조성 3억, 부안 서문교차로 개선 및 인도정비사업 4억, 부안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도로정비사업 3억 등 총 14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